

김은주의 별자리

Astrology 기초반

04. 게자리

당신이 게자리라면?

01. 나는 언제 행복한가?

02.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03.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Cancer

Cancer **게자리**

특성

열두 별자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별자리로 옛날에는 '구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게자리는, 여름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지만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보호본능이 강하다. “게눈 감추듯”이란 속담이 있듯, 게는 평상시에는 한가하게 돌아다니다가도 조금만 위험하다 싶으면 짹짹 눈을 감추고 숨어버린다.

그런데 흐릿하고 어두운 때문인가, 게자리는 누군가에게 명징한 기억을 남기고 싶어 하고(사진찍기가 취미), 비상한 기억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달의 지배를 받아 감성이 예민하다. 사람들의 감정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6월 21일 하지 ~ 7월 22일 대서

상징 :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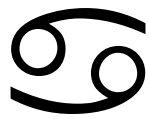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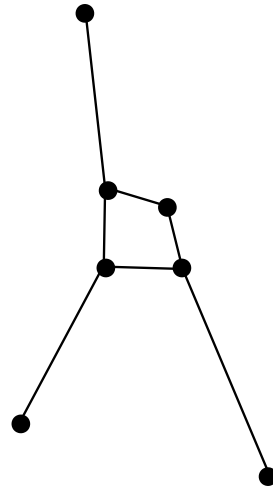
지배행성 : 달(Moon)

구성원소 : 물

상태 : Cardinal

키워드 : 어머니, 보호

04. 게자리



Cancer



Moon



Cancer

헤라클레스에 밟혀 죽은 게자리

히드라를 죽이는 헤라클레스, Cornelis Cort

신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과제는 히드라를 죽이는 것이었다. 레르네의 늪에 사는 히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인데 머리를 잘라도 다시 자라나며 가운데 머리는 불사의 머리였다. 게다가 신조차 두려워하는 맹독을 가졌다.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머리를 치자 새로운 머리 두 개가 솟아났다. 포기를 모르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머리를 계속 내려치는데 갑자기 발이 따끔했다. 돌아보니 거대한 게 한 마리가 집게발로 발뒤꿈치를 물고 있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죽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게를 보냈던 것.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게의 집게발을 자르고 발로 밟아 단숨에 죽여버렸다.





Cancer

Moon 달
지배행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한 명으로 사냥, 숲, 달, 처녀성 등과 관련된 여신이다. 아르테미스는 또한 여성의 출산을 돕고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여신이기도 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는 은활과 금화살을 들고 숲에서 사슴이나 곰 같은 짐승을 사냥하는 활기찬 처녀신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더 옛 시대에는 수많은 유방을 지닌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로마 신화의 디아나 여신과 동일시된다.



달 Moon





Cancer

사냥을 끝내고 쉬는 디아나

요제프 베르너, 1663.

지배행성 신화

디아나(라틴어 : Diana, 빛나는 것)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지간이다.

야생적인 처녀의 모습을 한 디아나(아르테미스)는 달이 비칠 때 은으로 만든 띠와 신발을 신고, 한 손에 은 화살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때는 산짐승과 초목이 춤을 춘다. 그녀의 화살은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므로 희생물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지만, 성격이 거칠고 복수심이 강해서 그녀의 진노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수없이 많다. 고대인들은 아르테미스를 유방이 가득한 여신으로 묘사할 정도로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다.





Cancer

John Davison Rockefeller

록펠러

유명인



☉ 게자리 × ☾ 쌍둥이자리

1839년 7월 8일

석유재벌

04. 게자리



Cancer

비

유명인



☉ 게자리 × ☾ 사자자리

1982년 6월 25일

태양을 피하는 방법

엄마 통장



Diana, Princess of Wales

스펜서 다이애나

유명인

Cancer



☉ 게자리 × ☾ 물병자리

1961년 7월 1일

유럽의 어머니



Cancer

I Feel (느끼다) Protect (방어하다)

화법

정서적이고 직관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생각을 표현하며 자기 생각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흩어진 정보 조각들의 관계를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것에 몰입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우는 경향이 있다.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형태로 꽃피울 때까지 양육하듯이 보호하고 키우는 경향이 있다.
기억력과 생각을 유지하는 힘이 좋아서 학습능력도 뛰어난 경향이 있다.

잠재의식 속에 갇혀 있는 선입관과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



Cancer

화법

게자리 알아보는 방법

집에서 잘 안 나가요.

기분파예요.

감정기복이 심해요.

자신의 옷이나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해요.

애착 인형/이불을 아직도 갖고 놀아요.

의심이 많아요.

소극적이에요.

낮을 심하게 가려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질투가 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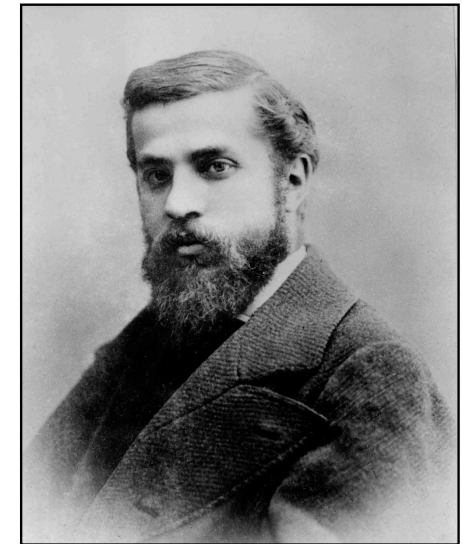
Cancer

Antoni Gaudi

안토니 가우디

1

화가



☉ 게자리 × ☾ 천칭자리

1852년 6월 25일



Cancer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토니 가우디

2

화가

“약한 몸으로나마 살아있다는 건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 그 뜻을 이루려면 병마와 싸워 이겨야 한다”

안토니 가우디 어머니의 기도





당신의 아이라면

Cancer

양육

게자리 아이를 둔 부모라면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울증에라도 걸린 듯 변덕을 부린다고
혼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이를 민감하게 만드는가 관찰해야 한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우리집을 꿈꾸는 아이에게 부모가 싸우는 모습,
불안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 감정기복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게자리 아이의 기억력은 비상하지만 한편 기억을 키워 왜곡시킬 수 있으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Cancer

사랑

그때 그 사람,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게자리

당신이 게자리라면, 감정기복이 심해 우울하고 외롭다고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
사랑을 해도, 결혼을 해도 어차피 외로운 건 마찬가지다.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돈도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퍼주는 사랑을 조심하라.
그렇게 퍼주고 집착하다 사랑이 끝나면 허무해서 쓰러지게 되고, 복수하고 싶어지는 거다.

“그 때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가수 심수봉처럼
게자리는 누군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징징거린다.



Cancer

건축학개론

영화

“네가 내 첫 사랑이었으니까!”

승민이 건축가 많은데 왜 찾아왔는지 묻자 서연의 대답

“난 바보가 됐나봐. 널 보면 느껴지는 이 감정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바보처럼 아무 것도 모르겠는... 나 널 좋아해!”

어린 승민의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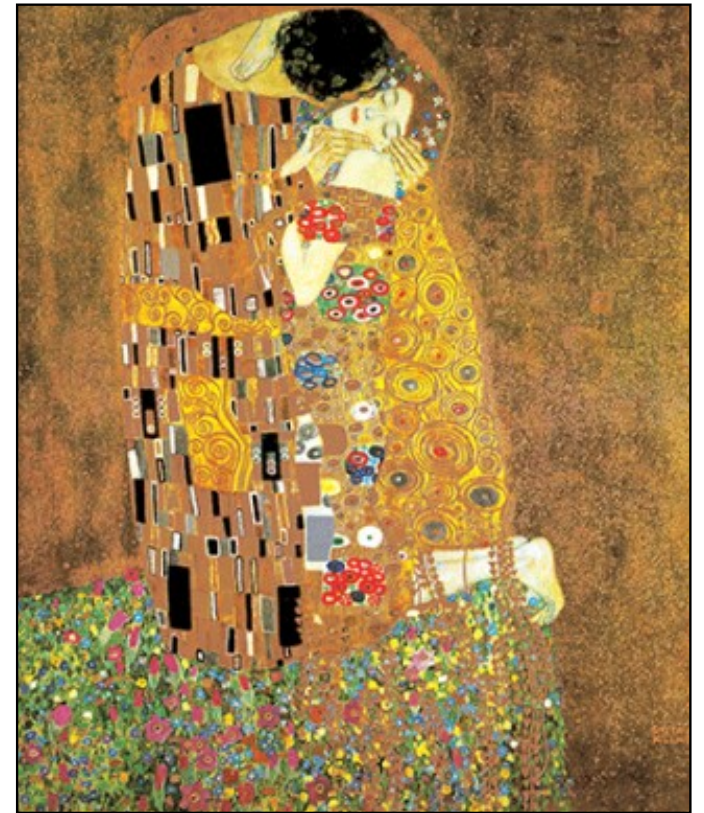


Cancer

The Kiss

1907~1908.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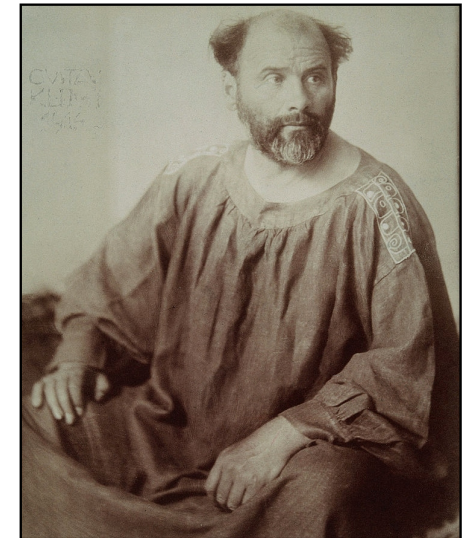
Gustav Klimt

구스타프 클림트

Cancer

1

화가



☉ 게자리 × ☾ 물고기/물병

1862년 7월 14일

분리파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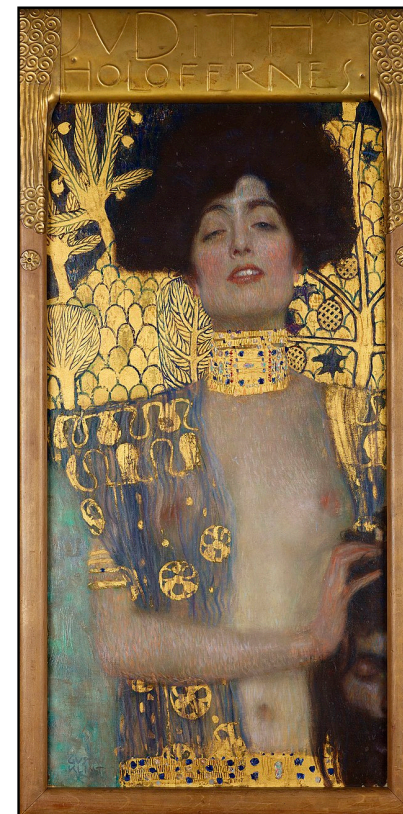


Cancer

2

유디트 1
클림트, 1901.

화가





Cancer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클림트,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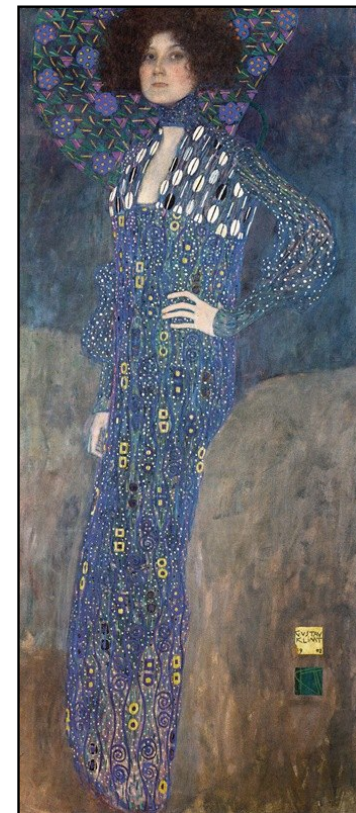
3

화가

미술사학자 토비아스 나터는 두 사람 사이가 ‘플라토닉 러브’였을 리는 없다고 말한다. 둘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가 가족처럼 고착되었다는 게 나터의 주장이다.

에밀리는 클림트가 사망한 후 둘의 내밀한 사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 서신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에밀리는 ‘클림트의 아내’라는 자리 대신 ‘에밀리 플뢰게’로 사는 길을 선택했다. 서로에게 굴레를 씌우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 에밀리가 택한 삶의 방식은 그것이었다.

전원경, <클림트> 중





Cancer

사랑

당신이 지금 게자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매력적인 게자리를 만났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농락하지 말라. 게자리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다. 자신을 상처 입히거나, 떠나려 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복수한다. 지금 게자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결혼까지 진도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낭만적이고 섬세한 이 로맨티스트를 누군가 훔 채 가거나 바람을 피울지 모른다.

물론, 비둘기처럼 다정한 우리 집(부동산에 탁월한 능력)을 위해 가계부(혹은 카드거래내역)를 검사하고 통장잔고를 자신의 단단한 보호막(게 껍데기)처럼 생각하는데다, 타고난 마마보이, 마마걸이라 친정, 시댁 부모를 알뜰히 살피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힘들 때 가슴속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는 한편, 강한 생활력으로 현실적인 책임을 질 테니 험난한 인생을 함께 할 반려자로는 최고!



당신의 상사라면

Cancer

리더십

일단 남들이 몇 년 동안 배울 일을 1년 안에 배울 수 있다.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업무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

당연히 야근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적절한 보상도 함께 해 줄 것이다.
가장 기억력이 뛰어나다. 무엇이든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낭비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니 비품을 아껴 써야 한다.

아낄 줄도 알고 투자할 줄도 아는 사람이니 가족처럼 든든한 직원이 되어 주라.



당신의 직원이라면

Cancer

리더십

그 직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직원이 일을 못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추진력도 있다.

게자리 직원은 딱 한 가지 이유, 월급 때문에 출근하니 적절한 보상을 줘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무척 섬세하고 예민하다. 반드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너무 자주 시키면 안 된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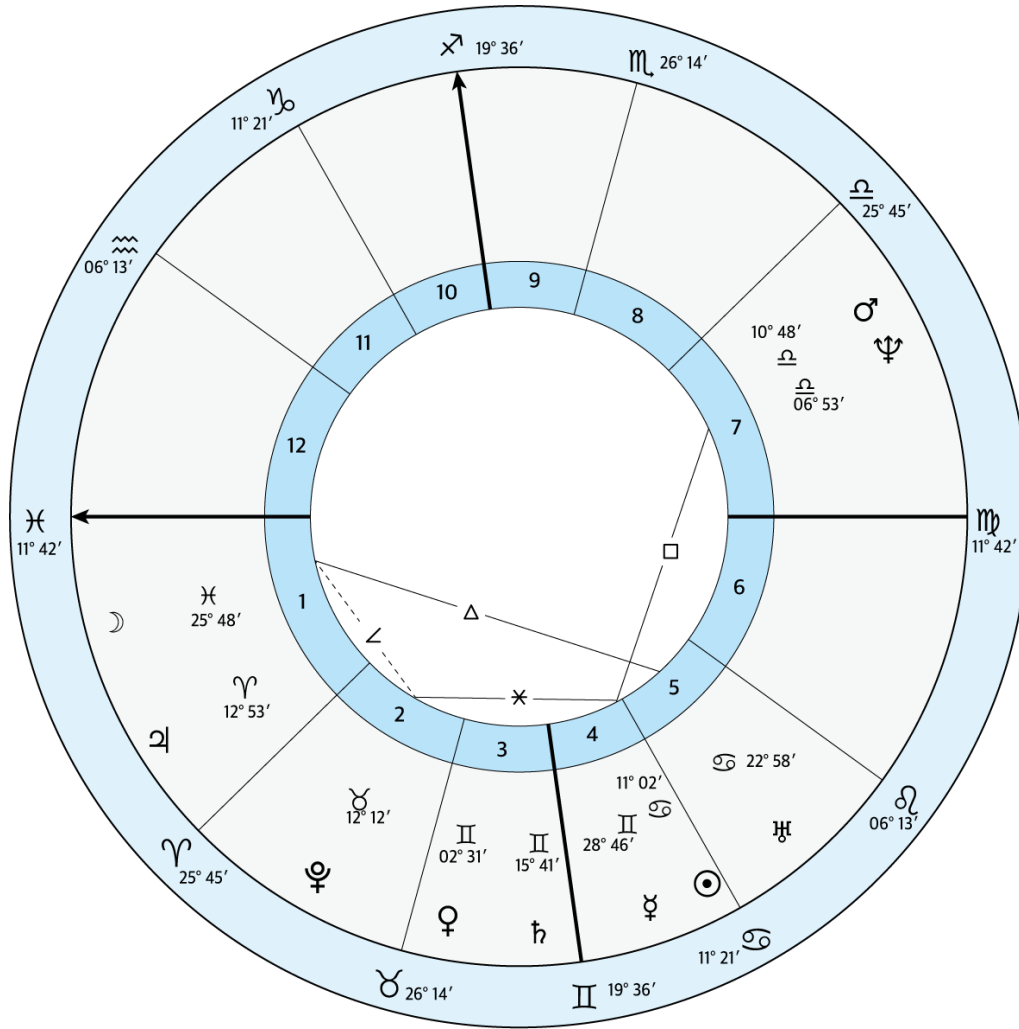
04. 게자리



Cancer

역사

1



조선 17대왕 **효종**

☉ 게자리 * ☾ 물고기자리
1575년 7월 3일 해시

NATAL CHART



Cancer

조선 17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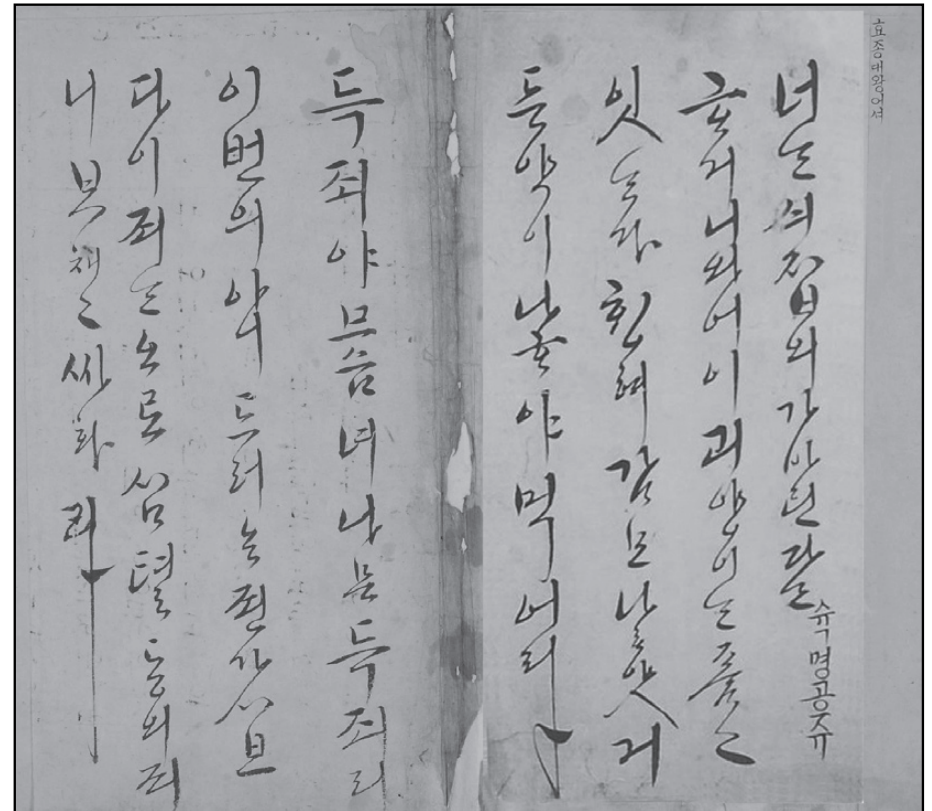
효종

2

역사

“죄지은 것이야 무슨 다른 죄를 지었겠느냐? (숙명이 네가) 이번에 아
니 들어온 죄인가 싶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은 전부 네
남편인 심철동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를 들볶고 싸워라.”

《숙명신한첩》





Cancer

조선 17대왕

효종

3

역사

“나에게 기질상의 병통이 없을 수 없어 한창 성이 날 때에는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은 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행하여 꼭 끝을 보고 난 뒤에야 그만두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근일부터는 화가 날 만한 일일 경우엔 참고 놔두었다가 밤에 생각하여 화가 점차로 풀린 다음에 처리하므로 과오가 적게 되었다.”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1658) 12월 27일

“이미 지나간 일을 밤중에 생각하면 나의 태양증太陽症이 너무 지나치지 않음이 없었다.”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윤6월 29일



Cancer

조선 17대왕

효종

4

역사

오른쪽 사진의 인물은 아담 샬Adam Schall로, 소현세자의 안목을 넓히게 한 인물이다.

인조 때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에 패한 조선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효종)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냈다. 이때 소현세자는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고 서양의 다양한 문물을 배웠는데,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만 키워 돌아왔다.

*소현세자 : 1612년 2월 5일생, ☉ 물병자리 * ☾ 물고기자리

*효종 : 1575년 7월 3일 해시생, ☉ 게자리 * ☾ 물고기자리





Cancer

조선 17대왕 **효종**

5

역사

“와신상담하며 간수干隧의 공훈을 세우리라 다짐했고
뜻밖의 일에 대비한 계연計然의 계책을 손바닥에 써 보였었다.”

《효종실록》 1권, 효종대왕 시책문諡冊文



Cancer

조선 17대왕

효종

6

역사

“전하께서는 마음에 굳게 정하시기를 ‘이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차마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고 하시어 원한을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원통을 참고 견디며 말을 공손하게 하는 가운데 분노를 더욱 새기고, 금화를 바치며 와신상담을 더욱 절실히 하여 계책의 비밀은 귀신도 엿보지 못하게 하소서.”

송시열의 <기축봉사> 중





Cancer

조선 17대왕

효종

7

역사

가평군수 이제두李齊杜 등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은혜와 청나라에 대한 굴욕을 잊지 않기 위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글씨 ‘사무사思無邪’, 선조의 글씨 ‘만절필동萬折必東 재조번방再造藩邦’, 효종의 글을 송시열이 쓴 ‘일모도원日暮途遠 지통재심至痛在心’, 이우李愰가 쓴 ‘조종암朝宗巖’이란 글을 암벽에 새겨 넣었다. 조종암의 글씨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널리 퍼진 송명배척崇禎排清 사상의 유물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은 효종과 송시열이다.



조종암



Cancer

조선 17대왕

효종

8

역사

“대동법은 역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신으로 하여금 나와서 회의하게 하더라도 말할 바는 이에 불과하니, 말이 혹 쓰이게 되면 백성들의 다행이요, 만일 채택할 것이 없다면 다만 한 노망한 사람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이니,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효종실록》 2권, 즉위년(1649) 11월 5일 김육의 차자





Cancer

이제훈

유명인



☉ 게자리 × ♀ 처녀자리

1984년 7월 4일

<시그널>

<모범택시>



Cancer

이병헌

유명인



☉ 게자리 × ☾ 천칭자리

1970년 7월 12일

<번지점프를 하다>



Cancer

Henry VIII

헨리 8세

유명인



☉ 게자리 × ☾ 양자리

1491년 6월 28일

서양 사극의 단골 주인공

Q&A

12 별자리 건강 포인트



Aries
양자리



Taurus
황소자리



Gemini
쌍둥이자리



Cancer
게자리



Leo
사자자리



Virgo
처녀자리



Libra
천칭자리



Scorpius
전갈자리



Sagittarius
사수자리



Capricornus
염소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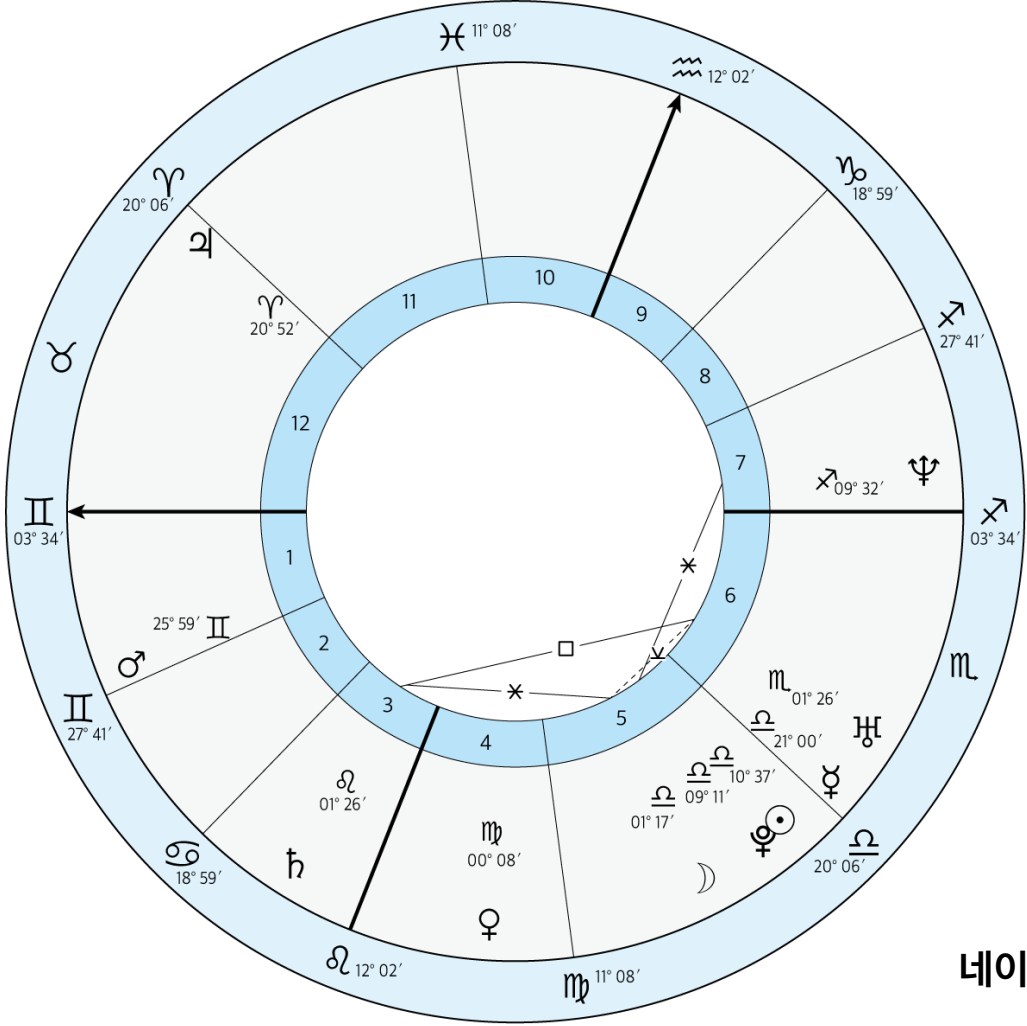


Aquarius
물병자리



Pisces
물고기자리

04. 게자리



김은주
 ☉ 천칭자리 * ☾ 천칭자리
 1975년 10월 4일

네이탈 차트(Natal Chart)

사자자리 작품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THANK YOU